

2019년 8월 22일, 서귀포시 대륜동(서호동) 서호동경로당, 문순덕 · 김은정 조사.

제보자1: 현경옥(여, 1930년생, 서귀포시 서호동)

- 서귀포시 서홍동 출생으로 17세부터 현재까지 서호동에서 살고 있다.

제보자2: 오춘길(여, 1922년생, 서귀포시 서호동)

- 서귀포시 호근동 출생으로 22살세부터 현재까지 서호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남선비가 일곱 형제를 두고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그를 찾아 떠난다. 남선비를 찾았으나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작은부인도 함께 데리고 온다. 오는 길에 작은부인은 큰부인을 죽이고 큰부인 행세를 한다. 집으로 돌아와 아픈 척을 하고 점쟁이가 일곱 형제의 간을 먹어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막내아들의 지혜로 아들들은 살아나고 작은부인은 디딜팡에 버려졌다.

[제보자1] 남선비가 어중한 사람이난 족은각시 말만 들었지. 아들 몇 개 다 죽이렌 한 거라. 그 하르방은 돼지새끼 하나 잡아당 주민 입에 불라그네 요 소곱에 놓고 막냉이 아들이 요망지니까 어머니 자리 치와내쿠덴 경행 확 들러뒹 보난 그 아래꼴아젖지. 아들 거엔 헹 하난 할망은 먹는추룩 헹 곱젓주게. 말제 알아내연 가시담 혜놔그네 구들팡 멘들고.

[제보자2] 여기서 쓸하지 못허난 육지 쓸 허게 가민 아들 일곱 성제 놔뒹 쓸 내레 가난그디 가그네 어떤 마누라 홀령 침 맞아부난 못 오난 큰할망은 기다리단 벼치난 바닷가에 배 뜨는디 바닷가에 강 사돛어 이레 돌락 배고 저레 돌락 배고 남선비야 남선비야 남선자석 오람다 초신배짝 오값이야. 초신은 배싹배싹 한 소리 납주게. 남신은 괈락 괈락 하고 남신 신엉 오값이냐 초신 신엉 오값이냐. 남선비야 남선비야 초신배짝 오람디야. 아들들 일곱 성제난 아들고라 아들이 글은 게 아니고 어멍이 니네들 한짐씩 혜 오민 일곱 짐 아니가. 그거 강 낭 헤당 테워 짓어 도라. 타그네 육지 가그네 너네 아방 돌양 오마. 강 한짐씩 헹 왕 일곱짐이라. 일곱짐으로 테워 짓엉 할망이 갓주. 저 바당에 강 짜꼬디 강 메여둬네

내려그네 촛이레 가는 거주. 들어가당 보난 무신 밧디 아이들이 잇어. 조조 요 생이야 요 생이야 남선비도 육은디 남선비 육은 체 안해도 호일대제뜰 본탕에 들엉 가질 못했저 조조허난 들엉 보난 이상한 꼭 자기 걸어진 말이라. 돌아오당

“너네 무신거렌 골아니?”

“무신거렌 안 골았우다.”

“조조 헹 무신거렌 골았저게.”

저 남선비양 조선서 쓸 받당 아기들 멕이젠 오당 가나네 호일대제 본탕에 들엉 가지 못허연 청지에 두렌 헌 건 놀새 비어당 청새. 청새집이 살았저. 경 골았어. 그거 어디니 어디니 하난 저레 가당 보민 청새집이 잇젘. 가당 보난에 그걸 봐진 거라. 봐지난 들어가네 하르방은 신 삼았어. 하르방 옛날 신 갖고 먹고 사는 거밖에 일허지 못하주게.

“이거 남선비네 집이꽈?”

경허난

“예. 무사 들없우가?”

허난

“집 ㅎ쓸 빌립서 나. 누웠당 가져.”

“아이고. 사람도 빌릴 디가 엇수다. 누우민 똥네 앗으민 방구청내 나는 디 빌리지 못합니다.”

“할망은 어디 갓수가? 할망은 놈이 맹질 장 얻어먹으레 갓수다.”

“정지에라도 누웠당 가크메 ㅎ쓸 빌립서.”

“정지에 누웠당 갑서.”

누웠단에 먹는 걸 보난 무시거 아이고 체범벅이나 행 먹없이난 저녁 앞밧디 강 삼수세미 뒷밧디 강 삼수세미 수세미할라고 삼수제비 걷어그네 솟은 열어보난 체범벅만 헤노난 삼수제비 가져강 박박 밀엉 씻어그네 쓸 아정 갓단 밥 헤여네 하르방신디 들렁 가서. 밥 헤영 들러가난 나도 연날 버렝이밥 먹어낫주만은 게난 어디 살아납디가 제주도엔 햇던 모양이라.

“할망은 어디 갓수가?”

“장 얻어먹으레 갓수다.”

할망 말제 들어온 거 보난 치메통에 체범벅 쌍 와그네

“이거 우리할망이우다.”

큰할망?라 골으난

“아이고, 성님이구나. 성님이구나.”

하멍 이젠 하르방은 가겐 헹 돌아올 때 제주도로 돌아올 때 마누라가 갈라지  
젠 헛니까. 나도 훈디 가젠 나도 훈디 가젠 할 수 엇이 새각시 나가기는 했는  
데 하르방은 경혜도 이 질로 가민 날랑 이디로 가멍 친구 사는디 봐 가肯. 두  
씨앗이 오다네 내 봐지난

“성님 옵서. 몸이라도 곰양 가게. 먼길 걷젠 허민 땀내도 납니다. 고운 옷 입  
엉 가난 옵서. 이디서 몸곰양 가게 몸곰양 가게.”

허건 경허렌. 큰 씨앗고라

“그냥 옷만 벗엉 저낭 우트레 걸칩서. 걸쳐동 몸곰아삽니다. 옷 벗엉 낭 우트  
레 걸쳐동 성님부터 몸곰읍서. 등 밀어주쿠다.”

등 밀어주는 척허멍 들이쳐 분 거라. 경허난 나오라네 족은각시가 옷 조근조근  
줏어 입언에 큰각시추룩 오랑 보난 아들 일곱 성제는 아들들은 큰어멍산디 족은  
어멍산디 몰랏인디 제일 족은아들이 요망저. 큰것들은 신이 나서 어멍 돌양 오랜  
게 이례 옵센 살Zen 살Zen 하난 밥을 졸바로 해 줍니까. 쌀 엇곡 허난 밥도 제대로  
안헤 징 어디강 체 빌어당 체범벅만 헤 주고 그 할망이 중병이 든 거라. 아야아야  
나 죽어가멘 나 죽어가멘 하르방고라 ‘저 아무디 강 복서.’ 하르방 잇젠 헛우다.

[조사자] 점쟁이로.

[제보자2] 점 져도렌. 다른 사람 체 들려강 앗양 신 거라. 앗양 시민 지네 할망인 줄 몰랑  
할망 점지래 오랏수다. 어디서 옵디가 골읍센 아무디서 오고렌. 에에 아들 애  
내어 먹어사 좋으쿠다. 아이고, 그 아들 문 죽여불Zen 경협니께. 또 오민 무시거  
렌 골읍디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먹어사 좋댄. 다른디 강 복서. 구덕 쓴 할

망 잊수다. 질로 가민 글로 넘어강 구덕 쟁 앗앙 점 지레 왓수다. 아들 일곱 성제 할망은 아팡 죽어값우다 점지레 왓수다.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어사 산댄. 경허난 할 수 엇이 오란 성님들고라 이 올레 사십서 나 들어가그네 나 불르거든 들어옵센. 앞이 가그네 족은아들 들어강 아 그거 안 골아졌저.

어떤 사람들이 느네들은 무사 그디 앗안다. 게난 어멍 애 내어먹어사 살肯 허난 어멍은 차마 죽이진 못하고 울멍 여기 왓수다.

그 하르방이 여기 강 보라 도새기 일곱 개가 시난 하나랑 네기곡 여섯 개 잡앙 애 내엉 가라. 경허난 도새기 새끼 일곱 개 애 내엉 가그네 성님들랑 이디 삿당 나 불르건 옵센. 들어가네 성님들 애 내엉 오랏수다. 이거 먹읍서. 조근조근 문고냥 터 청 배려보난 먹음이랑 말앙 베개 알드레 살짝 살짝 놔 불어. 다 먹은거 닮으난 ‘어 머니 먹어집디가’ 허난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만 더 먹없이민 살아지켜.’ 경허난, ‘어머니 머리에 이나 잡아줘그네 나 죽우크다.’ ‘아이고 중병들민 이도 아이 잡힌다.’ 허건 자리나 치워그네 잘 닦아내쿠다. 중병든 딘 자리도 아니 치<sup>있</sup>댄 헌다.

경허명 족은아들을 죽이지 못허게 하는 거라. 경허난 수뭇 잡아먹으명 성님들 이디레 들어옵서. 게난 막 일곱 성제가 들엉 수뭇 통시 두들팡 놔가지고 거기 앗 아서 똥 눕거든? 발 디딘덴 흐는 두들팡하고. 데멩인 헤그네 도고리 멘들아그네 경허난 그게 그 할망 죽은 도고리가 연날 경허난 사람이 뜯통에 건들민 동티난댄.

- 핵심어: 일곱 성제(일곱 형제), 애(간), 큰부인, 족은각시(작은부인), 막내아들, 남선비, 도새기(돼지), 두들팡(부축돌), 체(겉 겨), 쓸(쌀)